서울시장 보선은 내년 총선·대선 전초전

與 "보수 총집결" 野 "후보 단일화"

오세훈 사퇴 … 여야 보선 전략 부심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자 10·26 재보선에 서울시장 선거가 포함되면서 정국이 출렁거리고 있다. 여야는 새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지형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초반부터 총력 대결에 돌입할 태세다.

◇한나라당=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보수층이 결집됐다고 판단, 이 보수층에 중도층까지 끌어들이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와 선거 쟁점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이은 복지 포퓰리즘과의 대결 2라운드로 삼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당내 전략가들은 이에 부정적이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서울시장 입후보 희망자들의 공천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기존의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에 서울 출신 의원 2명을 추가하고, 선거대책위원회도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조기에 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 정두언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으며 당 지도부는 경쟁력 있는 외부인사 영입 가능성도 열어놓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민주당=선명하고 능력있는 후보 선출, 서민·중산층의 피부에 와닿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 제시, 이슈 선점 등에 당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인물 면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당내는 물론 외부인사 영입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복지, 통합, 세대교체 흐름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천정배 최고위원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의원직과 당직을 사퇴한 가운데 박영선 정책위의장, 이인영 최고위원, 김효석·추미애·전병헌 의원, 한명숙 전 총리, 김한길 전 의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조국 서울대 교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주자가 난립할 경우, 예비경선을 통해 '인물 띄우기'에 적합한 규모인 2~4명으로 후보군을 좁힌 뒤 본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야권 후보 단일화이다. 진보정당과의 단일화로 한나라당과 1 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답보 상태인 야권 대통합 논의와 맞물려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천정배 "서울시장은 나" 오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 간 여니와 수니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둘째 날인 28일, 경기장 주변에 설치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부스에 몰려든 관람객들이 박람회 마스코트인 여니, 수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최대 5개 부처 개각 '반전 카드' 있나

빠르면 오늘 단행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최대 5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특임 장관의 교체가 확정된 가운데 통일부와 여성부 장관도 교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28일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당에 복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인사인 만큼 이벤트성 개각보다는 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부 장관 후임자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 장관 후보로는 현역 의원 중에서 한나라당 고흥길·조윤선 의원이, 전 현직 문화부 차관 출신 중에서 김장실 예술의 전당 사장, 박선규 문화부 제2차관,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극인인 송승환 PMC 프로덕션 대표이사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김진선 전 강원지사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관 후임으로는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최원영 복지부 차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 관료 출신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복지부 차관을 지낸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경제관료 출신인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하마평에 올라있다. 당으로 복귀하는 이재오 특임 장관의 후임은 급하게 임명할 필요성이 작다는 판단 아래 당분간 비워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가장 유력한 후임자로 거론돼온 류우익 전 주중 대사 대신 참신한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언이다. 류 전 대사와 함께 남성욱 고려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우상 호주대사 등이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다만 북한과 민주당이 연일 현인택 통일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과 교체 요구를 계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마치 떠밀리듯 장관을 교체하는 모양새가 되거나 북한에 그릇된 신호를 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부 장관 후임자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김금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복지전쟁' 2라운드? '女-女 대결' 성사될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전 포인트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이어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야당 후보 단일화 여부, 여성후보 간 대결 가능성, 등도 관전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복지 대결 재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표면화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이 서울시장 보선에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사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1~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복지정책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 하위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주민투표를 통해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그동안 준비해온 복지 시리즈의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9일에는 지난 8개월 동안 준비해온 3+1(무상급식, 보육, 의료+반값등록금) 정책의 완결판을 제시한다.

◇주민투표 표심 향배는= 주민투표에 참여한 25.7%의 유권자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우선, 한나라당은 평일에 실시한 정책투표에서 서울시민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것을 놓고 보수층 결집의 결과로 해석했다.

민주당도 이번 투표에서 예상보다 높은 보수의 결집이 이뤄졌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와 보선의 성격이 달라 투표 양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다 민주당의 지지층도 20% 대에 달할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감안할 때 투표율 제고가 승부처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여성대결 이뤄지나= 서울시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여성 후보 간 대결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여야 모두 강력한 여성 후보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두 차례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할 만큼 인지도가 높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오세훈 전 시장에 이어 2위에 오른 나경원 최고위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오 전 시장에게 0.6% 포인트 차로 석패한 한명숙 전 총리와 당내에서 '일당백'으로 통하는 박영선 정책위의장, '추다르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추미애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 단일화 성사 여부= 야권 연대의 성사 여부는 보선의 중요변수 중 하나로 분류된다. 야권이 수차례 후보단일화를 통해 야권 연대가 박빙의 승부처에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별로 야권 협력의 방안을 놓고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 형태로 정무부시장을 다른 야당에 주는 형태의 협력 방안까지 거론된다. 반면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이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책연합을 통한 선거 연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오늘~9월 6일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 처리

광주시의회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제202회 임시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11월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키로 하는 등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문상필·정희곤·전주연 의원 등이 발의한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의 조례안 16건과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촉구 결의안, 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등을 처리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청원 건 등을 논의하며, 각 위원회별 현장 방문도 이뤄진다.

한편,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정병문 의원(인권도시 조성의 기존 전제 관련) ▲김선호 의원(경술국치 102년과 친일 인명사전) ▲박인화 의원(시 교육청 비정규직 현실적 처우 개선 문제) ▲문상필 의원(민중가요 박물관 및 상설공연장 건립 필요성) 등의 5분 자유 발언과 ▲손재홍 의원(송암학원 임시이사 선임 내역) ▲서정성 의원(U대회 수영장 관련)의 긴급 현안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알 림 작가 휴가로 만평·만화 당분간 쉽니다.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직판1등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광주지점 OPEN 기념!
가격은 특가! 품질은 품격! 대!방!출!

자유투어 ONLY ★꿈의 휴양지★ 하와이 5일
아시아나 항공 취항기념 9/22~12/1
자유여행 699,000원~
실속여행 799,000원~
품격여행 999,000원~

Good! 찬스! ★무릉도원 바로그곳★ 장가계/천문산 4/5일
아시아나항공 이용 10/26까지
실속여행 499,000원~
품격여행 649,000원~
포함사항 : 황룡동굴, 천문산, 발맛사지, 상강유람선(선내식), 2억보험

호남지역 출발 고품격! 초특가 상품 [준5성급]
- 타사대비 비교불가! -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8/27~10/28출발(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249,000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279,000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8/22~10/27출발(월,수,목,토)]
상해,항주,소주 4일 219,000원~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679,000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19,000원~

광양훼리 큐슈 3박 4일 [8/28~12/21출발(일,수)]
9/4,7 99,000원
9/11 추석기간 199,000원
9/14,18,21 129,000원
9/25,28 149,000원
10/2~12/21 179,000원

인천공항 출발 초특가 상품 -9,10,11월 출발기준-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서유럽3국(프,스,이) 8일 1,690,000원~
서유럽5국(융프라우) 10일 2,090,000원~
홈쇼핑HIT 동유럽 3국 7일 1,790,000원~

동남아
방콕,파타야 5일 449,000원~
세부 4/5일 349,000원~
보라카이 직항 5일 559,000원~
싱가폴 5일 659,000원~
5성급 캄보디아 5일 599,000원~
베트남 북부 5일 449,000원~

미주/남태평양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원
미서부 3대캐년+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원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1,649,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1,990,000원~

예/약/상/담
광천점 350-6226 | 두암점 267-8587 | 상무점 652-2974 | 수완점 574-1300 | 조선대점 227-8255 | 진월점 382-5353 | 첨단점 233-2627 | 충장점 222-9796 | 하남점 954-9700

서울시 중구다동 88번지 동아빌딩 5층,6층 ●서울시 중구청 등록 일반여행업 제39호 ●○표요금변동있음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가입(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1억원 여행자보험 ●1급이상호텔(일부상품제외) ●최소출발인원(10명이상/인솔자동행 -일부상품제외) ●전일정식사제공(기내식포함) ●교통편 : 항공/버스/기차/선박 ●여행불편처리센타 1588-8692 ●환율변동에 따라 요금변동 있음 ※여행일정변경 시 사전에 여행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가격포함 내역]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포함/유류할증료포함 (단, 자유여행상품은 미적용되며, 급격한 인상에 따른 유류할증료 금액 변동가능)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 : 상품 및 출발일에 따라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이 있을 수 있으며, 각국 비자비용 및 고객의 선택에 의한 안내원 봉사료는 선택경비 사항이며 기사/가이드팁은 권장사항임.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및 홈페이지 참조